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5호 [루게 제2493호]

주제 107  
(2018)년 6월  
9일  
토요일  
음력 4월 26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김정은만세!〉 소리 하늘땅 진감》

로씨야의 인터넷홈페이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김정은만세!〉 소리 하늘땅 진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조선의 하늘가에 《김정은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이 세계적인 정치

### 세계 각 국가 격찬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이 당의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조선은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를 중지한다고 심포하였다. 또한 핵시험중지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폐기하는 의식에 국제기자단을 초청하였다. 지금 조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총집중하고있다. 조선의 중동적인 조치로 북남수뇌회담이 이루어지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발표되는 등 조선반도에는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마련되였다.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을 환영하여 백두산위인정승국제축전 스위스조직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소식을 커다란 기쁨과 격동속에 접한 우리는 김정은위원장께와 조선로동당,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상봉과 회담을 계기로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밝은 전망이 펼쳐졌다. 이것은 거대하고 경이적이며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조선은 하나다!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지하며 전쟁을 반대한다! 조선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은위원장 만세! 본사기자

## 《조선의 북남수뇌분들 판문점에서 또다시 상봉》

### 세계 언론들 광범히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제인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신 소식을 세계언론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문제인대통령과 판문점 조선측 지역에서 상봉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문제인대통령은 북남고위급회담을 개최하며 련이어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부분별회담들도 가속적으로 추진해나갈데 대한 문제들을 합의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나가지고 하시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북남수뇌상봉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이 하루빨리 리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해나가

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미수뇌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제인대통령의 로고에 사의를 표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인디아-아시아통신은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문제인을 따듯이 맞이하시고 상봉의 인사를 나누시였다. 문제인은 판문점 북측지역 방문을 기념하여 통일각 방문록에 글을 남기시였다. 회담에서는 제3차 북남수뇌상봉에서 합의된 판문점선언을 신속히 리행해나가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되였다. 중국보도망, 환구망,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페르스통신, 신문 《폼소몰스카야 브라우다》, 에호 모스크비방송, 쿠바의 브렌사 라피나통신, 몽골의 몬짜메통신, 인디아의 신문들인 《힌두스탄 타임스》, 《인디안 익스프레스》, 《스레이즈멘》, 《힌두》, 《타임스 오브 인디아》, ANI통신, NDTV방송, 지 뉴스TV방송, 인터넷통신 보이스 오브 미러먼, 이란의 타스님통신, 프레스TV방송, 네팔의 신문 《코르카 익스프레스》, 인터넷잡지 《네팔 투데이》, 캄보자의 신문 《크메르 타임스》, 국가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도요신보》, NHK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영국의 BBC방송, 도이칠란트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 민주광교신문 《라브니르》,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에필트신문들인 《알 아흐람》, 《알 야움 알 싸비아》, 《알 파즈르》, 미국의 CNN방송, 베네수엘라의 신문들인 《엘 우니베르살》, 《올림피아스 노미세아스》, 멜레우르TV방송, VTV방송과 민주광교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백두산체스교조선친선협회, 이탈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 및 친선협회, 볼스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탐구자를 위한 국제친선발기, 포르투갈조선친선협회, 에스파냐 바스코주체사상연구소,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비롯한 광범한 세계언론들도 《조선의 북남수뇌분들 판문점에서 또다시 상봉》, 《북과 남의 령도자들 또다시 상봉》 등의 제목들로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된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조선소년단창립 72돐을 경축하여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으로 새 세대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는 국가의 고마운 손길 아래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역세게 준비해나가고있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이 조선소년단창립 72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72돐경축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가 6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박철민 1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조선소년단이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소년단원들이 강성조선의 기동감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소년단원들의 창창한 미래를 꽃피워주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시라고 하면서 모든 소년단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결사

옹위하는 열렬한 소년혁명가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고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이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조선소년단창립 72돐경축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붉은 벚꽃이 날리며 300만 앞으로》가 진행되였다. 같은 날 조선소년단창립 72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소년단대표들에게 절세위인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깃든 생일상을 차려주는 뜻깊은 축하모임이 진행되였다.

### 항해남도물길 2단계공사 빠른 속도로 진척

공화국에서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는 서해곡창지대인 황해남도 봉천군과 청단군, 룡매도간석지지구의 방대한 면적의 논과 밭에 관개용수를 자연흐름식으로 충분히 대주어 해마다 많은 알곡을 증

수하며 레성강지역의 큰물피해를 막고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키기 위한 웅대한 자연개조사업이다. 황해북도의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5개소의 대공사공사를 기한전에 끝냈다. 자장도의 건설자들도 물길굴

확장과 콩크리트피복공사, 버려치리를 전문으로 하는 단위를 고정하여 시간당 작업실적을 훨씬 높였다. 저수지연계건설을 맡은 평양시 건설자들은 장성공사를 립체적으로 내밀어 언제 전기간에 대한 배수물담공사를 계속하였다. 본사기자



집단지역적으로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 진행

【판문점 6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열망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속에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이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조영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립장을 확인하였으며 실천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며 6.15공동선언 발표 18돐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북남장령군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의 시기와 장소들이 밝혀져 있다. 공동보도문에는 이밖에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 서해선철도와 도로들의 련결, 현 대화문제를 토의하는 분과회의, 우리 예술단의 남측지역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날자와 장소를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며 판문점선언리행을 추진하기 위한 북남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 자주의 원칙은 판문점선언의 근본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통큰 결단과 뜨거운 동포애, 확고부동한 통일 의지에 의하여 지난 4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탄생하였다. 온 민족은 북남수뇌분들이 합의하여 내외에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

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기 한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자주의 원칙은 판문점선언의 근본핵이라고 할수 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을 이룩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서 주인은 바로 우리 민족자신이다.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 화합하고 단결하여 공동보조,

공동행동을 취한다면 그 어떤 복잡한 문제도 우리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조국통일운동과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사변적인 성과들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켜야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통일운동의 전진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북과 남은 하나의 피줄을 이은 동족이며 서로 손을 맞잡고 북남관계개선과 민족공동의 번영

## 조선의 힘은 자강력에 있다

여러 나라 언론들 보도  
은갖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눈부신 기적과 비약을 이룩하며 전변되어가는 주체조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는 속에 영국신문 《익스프레스》에는 이런 글이 게재되였다. 《조선의 수도 평양은 결코 (광교) 용도시가 아니다. 평양은 웅장화려한 건물들이 즐비해 늘어서고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한 도시이다. 오늘날 평양의 모습은 발전과 번영, 창조를 의미하고있다.》 세계의 많은 언론들은 몰라보게 변모되는 평양의 현실은 온갖 제재와 압박에도 끄떡없이 최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조선의 정신력의 반영이다. 또한 조선이 얼마든지 자기 방식으로 유족한 생활을 창조할수 있으며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준다고 하면서 날로 강해지는 조선의 힘은 다름아닌 자강력에 있다고 전하고있다. 로씨야 이르쿠츠크주 동부세비리출판사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의 자강력은 자기 스스로 강하게 하는 힘이다. 조선에서는 자강력이라는 말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자강력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조선인민이 조국해방전쟁후 짧은 기간에 전후복구건설을 끝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할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자 하나가 바로 자력갱생의 정신이었다.》 네팔신문 《라즈다니》는 조선인민이야말로 자기 힘을 굳게 믿

을 이룩해야 할 한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전도와 운명문제는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와 평화번영, 관계발전을 바란다면 민족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한다. 김철성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비 약 과 번 영 의 지 름 길

강력한 국가건설은 과학기술력 과 교육수준에 달려있다. 공화국 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과학기술강 국건설을 선차적인 목표로 내세 운것도, 시종일관하게 과학중시, 교육중시로선을 견지하고있는것 도 바로 이때문이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과학으 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 보하자!》는 전략적구호를 제 시하시고 과학기술발전에서 갖 는 관심과 크나큰 로고를 기 울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의 현 명 한 령도에 의하 여 공 화 국 에서 과학과 교육은 급속 히 발전하며 경 제 건 설 을 힘있게 추동 하고있다.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 과학으로 비약하는 시대

과학기술력이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자원으로 되고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오늘날 과학기술발전속도가 나라의 발전 속도라고 할수 있다.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과학으로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이고 의 도이다.

과학기술발전이 박차를 가하여 나라의 종합적과학기술력을 가 까운 앞날에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 들의 수준에 이르도록 할것을 구 상하신 그이께서는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과학 자들의 애국충정과 인민의 슬기 와 민족적자존심을 폭발시켜 년 대와 년대를 뛰어넘으며 비약하 여나갈때 대하여 가르치셨다.

그이께서는 첨단돌파전을 힘있 게 벌려 과학기술전반을 빨리 발 전시키고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 축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과학 기술이 경제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인재를 중시하고 전민과학기술인 재화를 실현하도록 할데 대한 문 제 등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서 나서는 방향과 과업을 확히 밝혀주시었다.

지난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 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 우는데 있다고 하시었다.

과학기술발전에서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이의 비범 한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과학기 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경

제발전과 인 민생활향상을 위한 길에서 기관차의 역할 을 하고있다.

1980년대까 지만 하여도 기초 과학 과 응용과학연구 에 머물러있 던 공화국의 과학기술연구 개 발 영역 이 이제 세계 적인 첨단과 학분야를 전 면적으로 포 괄하는 넓은 령역으로 확 대되었고 우 주강국, 프 로 그램개발강국 으 로 되었다.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몇 나라의 독점물인 아크릴계철 감생산공정도 자체로 연구개발완 성하였고 첨단기술인 량자암호통 신기술도 자체로 개발하였다. 기 계제작공업분야에서는 새형의 화 물자동차, 트랙터, 만능화면 고 기배, 성능높은 전기기관차 등이 생산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단천제련소, 대동강리일공장, 삼천메기공장, 평양체육기재체공장, 대동강주 사기공장을 비롯한 많은 생산기 지들의 중요생산공정과 설비들 이 현대화, 정보화되고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먼 저의로봇사체계가 구축되게 되 었다. 폭스 대신 무연탄으로 선 철을 생산하는 산소벌법에 의한

생산공정이 완성되고 무연탄가스 화에 의한 질소비료생산상화가 실현되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이 생산되 어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인민생 활향상을 도모하고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적적성파 들은 과학자들의 지혜와 열정, 애국충정의 고귀한 열매이다. 과학보다 먼저 인간을 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들 을 위하여서는 아까울것이 없다 고 하시며 그들에 대한 사회적우 대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세심 히 보살펴주시었다. 과학자거리, 인제가 많으면 작은 나라도 강 위성과학자주력지구, 과학자휴양 소 등 과학자들에게 둘러친 혜 령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을 얼마나 중시

하고 과학자들에게 둘러지는 국가적혜택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가슴뜨겁게 느끼곤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중시의

##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

인재는 나라와 민족의 첫째가 는 재보이다. 예로부터 한해 일 을 중양하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 고 10년을 계획하려면 나무를 심 어야 하고 100년을 내다보려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 얼마나 중 요한가를 새겨주는 격언이다.

승고한 뜻과 현명한 령도 밑에 공 화국에는 과학으로 발전하고 과 학으로 흥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사업을 만민대계의 애국사 업으로 여기시고 교육발전에 커 다란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 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나라 의 교육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 고있다.

교육혁명을 일으켜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건 설하시려는것이 그이의 구상이고 부한 자원도 빛을 낼수 없으며 사회화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교

육이 발전하여야 나라가 발전한다. 교육사업을 만민대계의 애국사 업으로 여기시고 교육발전에 커 다란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 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나라 의 교육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 고있다.

교육혁명을 일으켜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건 설하시려는것이 그이의 구상이고 부한 자원도 빛을 낼수 없으며 사회화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교

으로 세계교육발전추세와 나라의 교육실 태를 통찰하신 경 애 하 는 원수님의 현 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 반 적12년제의무 교육이 실시 되고 나라의 교육체 계 가 더욱 완비되 여 인재강국 화, 전민과학 기술인재화를 힘있게 추동 하게 되었다.

고등교육체 계를 갱신하고 정비하며 대 학들을 종합 대학화, 일원 화하여 고등 교육의 전반 적수준을 높 이는문제, 대 학들을 교육 과 과학연구, 생산이 하나 로 밀착된 지 식경제시대의 일류대학으로 발전시키

는 문제 등 교육발전을 위 한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 는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교육원 대회의 신호탄이 오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을 건축부 문의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 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 개 선강화하여 건축교육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 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 세 대 들을 쓸모있는 인재로 양성하 면 학생들의 교실에 앉아 공부만 하게 할것이 아니라 체육도 하 고 유희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 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 다. 그이의 세심한 관심과 보살 피심이 깃든 학생소년궁전과 학 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전자 도서관을 비롯한 과외교육요양기 지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 며 지적체를 겸비한 나라의 역군 으 로 성장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1월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시어 교육혁명을 일으키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현명하게 밝혀 주신것은 그이께서 교육을 얼마 나 중시하시고 교육발전에 얼마 나 깊은 관심과 로고를 기울이시 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하는것이다.

령도의 거장인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중시, 교육중시정 처에 공화국이 사회주의강국으로 비약하는 변영의 지름길이 있다.

본사기자 리 설

## 나라의 변영과 미래를 위한 길에서

### 달라진 거리 이름

주제103(2014)년 1월 국가과학원 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하는 과학자거리의 이름을 위성과학자거리 로 명명하는것이 좋겠지 라고 하시 었다. 그런데 그후 그이께서는 새 거 리의 이름을 위성과학자주력지구로 다시 명명하도록 하시었다.

주제101(2012)년 6월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함께 교육문제와 관련한 담 화를 나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등일반교육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 서는 교원들의 자질과 역할문제를 화 제에 달으셨다.

그이께서는 교원들이 후대교육에 대 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육은 조국과 혁명 의 미래를 가꾸는 영예로운 사업이며 가장 책임적이고 보람있는 사업이라 고, 교원들이 이것을 명심하고 참다운

### 밀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라

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 다 하시면서 그래서 위성과학자거리 를 위성과학자주력지구라고 명명해 주셨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과학자거리의 형태를 갖 추자면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 면서 그곳에 주력지구를 더 형성하여 현 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위성과학자거리로 부를수 있다고 하시 면서 그대 가서 위성과학자거리로 다 시 이름을 바꾸자고 하시었다.

학생들속에서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쟁쟁한 역군들이 배출되게 된 다 고 하시면서 평양교원대학의 교직원 들을 비롯한 온 나라의 교직원들은 교육사업의 담당자, 새 세기 교육혁 명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교육사업에 불라는 애국적열정과 깨 끗한 관심을 바쳐가야 한다고 강조 하시었다.

과학자들을 위한 일에는 만족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1월 국가과학원 을 현지지도하 시면서 과학기술인재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쏟으며 그들을 존중해주고 연구사업과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절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주는것과 함께 과학연구부문에 대 한 투자를 계속 늘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과학원과 위성과학자 주력지구를 더 잘 꾸리는데서 나 서 는 대책문제들을 다시금 의논하 시었다.

본사기자

## 과학자들에 대한 두터운 믿음

오늘 공화국에는 자기의 지혜와 열정으로 나라와 인 민을 위해 복무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많다.

비옥한 토양에서 곡식이 충실히 여무는것처럼 부강 조국건설에서 인성의 아름 다운 자욱을 남기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재능과 위훈은 절세위인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원천으로 되고있다.

몇해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그날 과학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절실하게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방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과 함께 기초 과학연구에 상당한 힘을 넣 도록 할데 대하여 지적하시 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

한 연구성과들을 현실에 반 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적으로 내밀도록 할데 대하 여 이르시었다.

과학연구사업은 생노길을 헤쳐나가는것이나 같다고 하시 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과학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 하려면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 구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 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 리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 시었다.

본사기자

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 집이라고 하시었다. 그리시 면서 우리의 과학자들은 나 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 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치하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 의 비상한 두뇌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 무하도록 믿고 내세워주시 며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제102(2013)년 8월 어느 날 과학기술현 람관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새로 개발한 첨단기술기재들 을 보시고 현실에서 제기되 는 문제를 중차로 짚어주시 는것을 좋다고 하시었다. 그리시 고는 조선사람들은 머리가 총 명하고 비상하기때문에 마음 씀대로 연구사업과 부강조국 건 설에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 《조선은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 국제사회계가 격찬

과학과 교육발전에 커다란 힘 을 넣으면서 강대한 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국제사회계의 이목을 모 으고있다.

민주공로주체사상연구 전국위 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당중앙 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 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문 제는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 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 면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 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 구호를 제시하시었다.

이 구호 하나만 놓고서도 보다 위황찬란하게 변모된 조선의 앞 날을 그려볼수 있다.

조선로동당의 구상은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는것

이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나가는 조선의 앞 날이 기대된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자 말무르지부 위원장은 이렇게 말 하였다.

최근 조선이 거둔 성과들은 모 두 국내과학자, 기술자들의 노력 에 의한것이다. 특히 첨단과학기 술분야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조선의 사회주의 교육체제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 이다.

로세야의 테워-로쓰프신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과학기 술을 중시하시며 그 실현을 위 하여 과학연구기관들을 찾고있 으신다. 그이의 지도밑에 국가 의 과학기술발전전략이 높은 속 도로 실현되고있으며 모든 분야

에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 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고령도자의 정치는 새로 운 기적창조에 펼쳐나선 조선인 민의 투쟁에 활력을 부여해주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베네수엘라의 인터넷리신트 《비다 이 아르메》는 승고한 후 대관, 미래관이 국가정책으로 철 지히 구현되고있는 조선에서는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사회에 서 리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수 없 이 펼쳐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 과 같이 전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 시되고있는 조선에서는 교육사 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 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학교교육뿐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 계 등 온갖 형태의 교육도 국

가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다.

이처럼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 적인 교육제도에 기초하여 조선 은 사회주의강국, 명명강국을 향 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민주공로대학 학생 및 학생련맹 대 표단 단장은 조선의 과학기술전 당은 참모로 훌륭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어른들뿐만아니라 학생소년들 도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실용을 보시고 우리의 과학 자들의 두뇌에서 나온 창조 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 곳은 자력자강의 보물고, 국

본사기자



과학으로 조국을 받들어갈 일념을 안고 —과학기술전당에서—







# 일본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언제인가 한 문인은 지도상에 위치한 일본을 보면 군화발처럼 생긴 조선의 발끝에 채워 대양 한가운데 휘뿌려진 4개의 섬조각들을 련상케 한다고 지적학적으로 사를 한바 있다.

일본의 재빠른 표정변화에 혀를 차기에 앞서 얼마나 가공한 처지에 빠졌으면 저러라 하는 쓸쓸한 생각이 먼저 든다.

실지로 지금 조미관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불안에 휩싸인 아베를 잡아보고 싶어서 과거에 버둥대는 현 일본의 처지를 보느라든 현의 말이 스스로 떠오르게 된다.

얼마전 일본수상 아베는 어느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애는 조선 압박공조를 구걸하던 도중 워싱턴에서 조미대화를 취소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소리를 전해들자 생각해볼 사이도 없이 제격 《존중하고 지지한다》, 《원래부터 북미정상회담을 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환호를 울리었다.

더욱 하루는 그다음이다. 미국이 가루시간도 채 안되어 조미수회담개최일정은 변함없다고 다시 언급하자 아베는 금시돌변하여 《적극 환영한다》, 《누구보다 기다림을 강렬히 기대한다》고 박수를 쳐대었던 것이다.

평화와 안정을 향한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을 되돌려세워 보려고 마치 불관우의 개미 떼마냥 안달부랄해대며 부질없는 짓거리에 몰념하고있는 현실을 자기 눈, 자기 머리 로 보고 사유하는 능력을 상실한채 상진의 눈치를 살피가며 늘가의 갈대처럼 처신하는 일

본을 보면 《정치난쟁이》라는 불미스러운 명칭을 과연 언제 매바리졌는지 막연하지만 할뿐이다.

일본은 무엇을 모르고있는가. 과거 구대의 수렁속에 빠져 조미반도의 현실, 달라진 세상을 보지 못하고있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치달던 조선반도의 랭기류는 화해와 평화의 훈향에 밀려나고있다.

이번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투명성있게 진행된 북부핵시�헬장폐기에 대해

조미사이에 세기를 두고 지속되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는것은 언앞의 현실로 펼쳐지는데 대해 국제사회가 반기고있다.

일본이 진정으로 조선반도비핵화와 핵무기없는 세계를 바란다면 그 누구의 《비핵화》에 대해 입에 올리기 전에 적어도 조선반도핵문제가 어떻게 산생되었는가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여야 할것이다.

일본의 눈에는 우리의 이러한 선의의 조치가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진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일본이 그토록 《람치자문제》에 집착하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에 먹칠을 하고 군국주의광기를 더욱 조장해보려는 불순한 속심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부언하건대 북부핵시�헬장폐기에 일본만이 초청장을 받지 못한것은 《정치적세스슈어》라는 잡소리만 치는 얼간이들을 구태여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도 때도 없이 껴진 남미깎같은 《제재압박》 구미미를 싸들고 열성스레 여기저기 쏘다니며 반공화국대결광중에 미쳐돌아가는 섬나라출부들의 외곽서니는 비무역을 동네에 합가지이다.

일본이 행에서 처음으로 핵포대를 당한 나라라는 시점에서 파고드는것이 옳은것이다.

일본이 떠드는 《람치자문제》라는것은 싸구려서사의 형질만큼이나 너절하고 어이없는 것이다.

# 6월에 해거진 력사의 교훈

남조선력사의 갈피에는 《6.29특별선언》이 기록되어 있다. 남조선정권에서 일명 《속이구선언》으로 불리워온 선언이다.

6월1일민항쟁의 소중한 열매라고 해야 할 《6.29특별선언》이 왜 《속이구선언》이 되었는가.

세월이 흐르고 시대도 바뀌었지만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고통은 계속되고있고 친미사대와 파쇼독재에

가과의 파쇼암흑시대를 되살리려고 발광하고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해 일터선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낼수 없다.

1987년 6월 10일 남조선의 수심만명의 각계층 인민들은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로 군사독재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전두환파쇼도당을 반대하여 항쟁에 열기해나섰다. 그로부터 20일 동안이나 남조선인민들은 도처에서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 《미제축출》 등의 구호를 들고 집회, 시위를 비롯한 각종 투쟁을 벌리었다.

6월에는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또 하나의 사건도 있다. 2002년 6월 13일, 이날 남조선에서 신호순, 심미선 두녀중학생이 미군장갑차에 의해 부랑히 살해되었던것이 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빛어낸 비극적참상이었다. 이를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은 두녀중학생살인사건의 진상규명과 범피자처벌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조물투쟁을 벌렸다.

지금 초불항쟁으로 박근혜 보수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린 남조선인민들이 광범한 보수적폐청산투쟁을 벌리고있지만 이미 적폐세력으로 민심의 랭인을 받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발악 또한 심상치 않다.

남조선에서 사대역적무리들, 파쇼독재세력들을 끌어 버리려는 인민들의 투쟁열기로 6월의 대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대법원장이었던 량승래의 사법행정권 탐용행위가 드러나 각계의 비난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과 야당들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범가는 사법법단》,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사법부》, 《청와대 비위와 구미에 맞게 판결을 일삼았더니 기가 막힌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는 물론 《투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날달이 밝혀낼것을 촉구하였다.

적의 력사는 계속 반복되고있다.

본사기자 서 희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대법원장이었던 량승래의 사법행정권 탐용행위가 드러나 각계의 비난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전 대법원장이었던 량승래는 재임시절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의 사건판결을 보수적폐당과 결탁하여 《거재》, 《홍정》하면서 그들의 구미에 맞게 조작작리하고 일부 판사들에 대한 인사발령명부 《작성하는 등 엄청난 반인민적범죄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시기 보수집권세력인 사법부를 《정권》의 시사로, 보수 《정권》유지의 《별동대》로 색막어온 또 하나의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이다.

법이 만민에게 공평해야 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사법부가 독재권력의 도구로 리용되어 온것이다.

폭로된 전 대법원장 량승래의 사법행정권탐용행위는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후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보수적폐이다.

날이 갈수록 더더욱 드러나는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의 추악한 범죄행위들에서 남조선인민은 보수패당이야말로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가장 부패한 무리, 철저히 청산해버려야 할 쓰레기집단이라는것을 심각히 깨닫고 있다.

본사기자 서 희

두녀중학생살해사건을 계기로 분노의 초불을 들고 거리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

본사기자 김련옥

력사적인 판문점 선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넘넘하는 은 거대한 일치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 을 이루함으로써 폭어난 민족의 열매를 맺고 공동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 가는데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리징표이다.

하기에 오랜 세월 대결하고 반목해온 북과 남 사이에 마련된 화해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계속 도전해나서고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패거리들만이 력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악랄하게 현행시하면서 북남사이 에 마련된 화해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계속 도전해나서고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남조선정치권이 합의하였던 《국회》에서의 판문점선언지킬의안채택을 《결의안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 미가 없다》고 췌쳐대면서 끝끝내 파탄시켰다.

그런가 하면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있는 북남, 조미접촉들에 대해서도 《문제인정은 북핵도 련방계통일하면 우리것이라는 환상이 젓어 있다》, 《미북회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느니 뭐니 하면서 현 정세흐름을 가로막아보려고 악을 써대고있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홍준표패거리들이 《판문점선언지킬의안》이 아니라 북핵폐기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망발까지 거리낌없이 췌쳐댄것이다.

남조선당국과 여야당들이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지킬의안을 채택하기로 한것은 이번 선언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그런데 같은 민족이기는 고사하고 애당초 인간이기를 그만둔 남조선의 《자유한국당》 패거리들만이 력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악랄하게 현행시하면서 북남사이 에 마련된 화해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계속 도전해나서고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남조선정치권이 합의하였던 《국회》에서의 판문점선언지킬의안채택을 《결의안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 미가 없다》고 췌쳐대면서 끝끝내 파탄시켰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한 여야당들과 사회각계는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행위》, 《(한) 반도평화과정이 깨

리치이다. 그래서 조미대화가 화제에 오른 첫 시기부터 아베일당인 민간자신경을 끈듯세우고 조선반도에서 저들이 바라지 않는 변화가 일어날까봐 안절부절하고있는 것이다.

달라진 현실, 변화된 흐름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제 몸상에 사로잡혀있는 일본이 세인의 조소와 경멸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사악한 야마도족속들이 바늘귀만 한 틈새로 세상을 보며 참세의 허바닥을 질세없이 놀러다며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버리고 무진 에를 써야 더 큰 그림과 배척밖에 차려질것이 없다.

이제라도 남의 일에 쫓팔나게 손을 들이밀기 전에 자기들이 무엇을 모르고있는가를 맹철하게 투시해보고 죄악으로 얼룩진 저들의 더러운 진패를 씻어 버리기 위한 용단부터 내리어야 할 것이다.

리명박은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야말로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조공도 다라바 없는 천하역적무리이며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의 극악한 원수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역적무리들을 살려둔다면 민족공룡의 합이들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북남관계가 진통과 좌절을 겪은 쓰라린 과거가 또다시 재현될수 있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10년간이나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엄중한 해악을 끼친 범피단으로도 이미 이 땅에서 살아 숨릴 자격을 상실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보수패거리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누구든 민족의 근본리익을 외면하고 동족대결에 매달린다면 준엄한 철퇴를 먼저 맞게 된다. 이는 것을 박근혜타도와 보수 《정권》과범이 잘 말해주고있다.

이제 북남관계개선은 막을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다. 남조선의 반통일보수패당이 민족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할수록 력사의 흐름이 무리로서의 비참한 종말만을 더욱 앞당기게 될뿐 이다.

《한》 반도평화과정이 깨 문에 손사래를 치며 《홍준표패당》 대표 홍준표가 자기 당후보자들이 대한 선거지원유세를 중시하는 《선거전략 중산, 울산 등 지역을 돌면서 자기 당후보자들에게 대한 선거지원유세를 벌렸지만 정작 참가하여야 할 《자유한국당》 지방자치제후보들은 그 자리에 얼굴도 내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하나의 실례다.

친치바보는 콩과 보리도 제대로 가려볼줄 모른다.

하다면 홍준표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대세로 되고있는 평화분위기를 제대로 분간하지도 못하고 대결과 전쟁만 추구하는 시대착오자, 일간망가를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는가.

이런 추물, 인간오작품을 당대표로 《모시고》있는것이 너무도 창피하고 후끄러워 《자유한국당》의 많은 후보들이 자기 당의 상징인 빨간색의 잠바를 벗고 다니고있다.

홍준표가 은 민족의 저주와 규탄은 물론 자기 당세력들속에서까지 미움과 따돌림을 받고있으니 제대로 계가 받은셈이다.

개발에 도토리라고 여기거나 채로골적으로 벌여지고있다. 《자유한국당》의 수많은 후보들이 남과 북 조선반도평화분위기를 전방문위로 오도하는 거짓선동만을 일삼아온 홍준표의 지역방

단 평 개발에 도토리신세

지날 3일 남조선의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가 자기 당후보자들에게 대한 선거지원유세를 중시하는 《선거전략 중산, 울산 등 지역을 돌면서 자기 당후보자들에게 대한 선거지원유세를 벌렸지만 정작 참가하여야 할 《자유한국당》 지방자치제후보들은 그 자리에 얼굴도 내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하나의 실례다.

친치바보는 콩과 보리도 제대로 가려볼줄 모른다.

하다면 홍준표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대세로 되고있는 평화분위기를 제대로 분간하지도 못하고 대결과 전쟁만 추구하는 시대착오자, 일간망가를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는가.

이런 추물, 인간오작품을 당대표로 《모시고》있는것이 너무도 창피하고 후끄러워 《자유한국당》의 많은 후보들이 자기 당의 상징인 빨간색의 잠바를 벗고 다니고있다.

홍준표가 은 민족의 저주와 규탄은 물론 자기 당세력들속에서까지 미움과 따돌림을 받고있으니 제대로 계가 받은셈이다.

개발에 도토리라고 여기거나 채로골적으로 벌여지고있다. 《자유한국당》의 수많은 후보들이 남과 북 조선반도평화분위기를 전방문위로 오도하는 거짓선동만을 일삼아온 홍준표의 지역방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쟁쟁쟁

같은 다 껴진 북통을 두드러대며 지지표를 구걸해보아야 돌아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진재위협력은 전쟁과 대결만을 불리오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적폐세력이다.》는 민심의 저주와 규탄뿐이다.

선거철을 계기로 보수세력들에 의해 벌어지는 쟁쟁쟁은 비단 《안보》 타령놀음만이 아니다.

서로 더 많은 먹이를 삼키겠다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개들처럼 조공이라도 권력을 더 차지해 볼것과 서로 물고뜯는 보수세력들사이의 개싸움질 역시 이번 선거철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쟁쟁쟁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권을 쥐고 안하무인격으로 늘어대는 홍준표계와 비홍준표계간의 싸움이 그칠새 없다. 얼마전에도 비홍준표계가 《끝없이 침체일로새 견고있는 당지지불과 선거전략부재의 책임》문제를 두고 홍준표의 당대표사퇴를 요구하자 홍준표는 그것을 개소리로 치부하며 싸움질을 벌려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냈다. 사대와 동족대결,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시대와 민족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이 심판받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박철우

본사기자 서 희

본사기자 김련옥

남조선에서 어느때도 그리하지 않으면 선거철만 되면 보수세력들에 의해 펼쳐지는 쟁쟁쟁이 있다. 그 누구의 위험에 대처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왜가리처럼 불어대는 《안보》 타령이 그 하나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지방자치제선거가 하루를 두어 돌았을 지났지만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는 《안보》 타령이 그 하나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지방자치제선거가 하루를 두어 돌았을 지났지만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는 《안보》 타령이 그 하나이다.

같은 다 껴진 북통을 두드러대며 지지표를 구걸해보아야 돌아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진재위협력은 전쟁과 대결만을 불리오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적폐세력이다.》는 민심의 저주와 규탄뿐이다.

선거철을 계기로 보수세력들에 의해 벌어지는 쟁쟁쟁은 비단 《안보》 타령놀음만이 아니다.

서로 더 많은 먹이를 삼키겠다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개들처럼 조공이라도 권력을 더 차지해 볼것과 서로 물고뜯는 보수세력들사이의 개싸움질 역시 이번 선거철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쟁쟁쟁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권을 쥐고 안하무인격으로 늘어대는 홍준표계와 비홍준표계간의 싸움이 그칠새 없다. 얼마전에도 비홍준표계가 《끝없이 침체일로새 견고있는 당지지불과 선거전략부재의 책임》문제를 두고 홍준표의 당대표사퇴를 요구하자 홍준표는 그것을 개소리로 치부하며 싸움질을 벌려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냈다. 사대와 동족대결,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시대와 민족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이 심판받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박철우

남조선에서 어느때도 그리하지 않으면 선거철만 되면 보수세력들에 의해 펼쳐지는 쟁쟁쟁이 있다. 그 누구의 위험에 대처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왜가리처럼 불어대는 《안보》 타령이 그 하나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지방자치제선거가 하루를 두어 돌았을 지났지만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는 《안보》 타령이 그 하나이다.

같은 다 껴진 북통을 두드러대며 지지표를 구걸해보아야 돌아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진재위협력은 전쟁과 대결만을 불리오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적폐세력이다.》는 민심의 저주와 규탄뿐이다.

선거철을 계기로 보수세력들에 의해 벌어지는 쟁쟁쟁은 비단 《안보》 타령놀음만이 아니다.

서로 더 많은 먹이를 삼키겠다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개들처럼 조공이라도 권력을 더 차지해 볼것과 서로 물고뜯는 보수세력들사이의 개싸움질 역시 이번 선거철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쟁쟁쟁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권을 쥐고 안하무인격으로 늘어대는 홍준표계와 비홍준표계간의 싸움이 그칠새 없다. 얼마전에도 비홍준표계가 《끝없이 침체일로새 견고있는 당지지불과 선거전략부재의 책임》문제를 두고 홍준표의 당대표사퇴를 요구하자 홍준표는 그것을 개소리로 치부하며 싸움질을 벌려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냈다. 사대와 동족대결,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시대와 민족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이 심판받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박철우



# 주체화, 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향해

평양곡산공장은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으로서 온 나라에 널리 알려져있다. 얼마전 이 공장을 찾은 우리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주체화, 현대화의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내달리는 공장종업원들의 뜨거운 애국의 열정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공장에는 국내에서 널리 재배하고있는 강병이를 원료로 당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이 그쯔히 갖추어져있다.

자제의 힘과 기술로 만든 첨단 설비들에서 강병이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갖가지 식품들로 생산되어나오는 이채로운 풍경은 평양곡산공장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되새기게 했다. 우리가 공장안에 들어서니 불꽃이와 같이 공정을 거친 강병이가 농마와 껌질, 눈, 단백으로 분쇄되어나오고있었다. 농마는 액질로 또 다른 제품인 옥당도 만들 수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잘 만들었다고 그토

록 높이 평가하신 옥당이였다.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 무균화, 무전자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엄격한 품질검사체계까지 확립함으로써 로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률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제품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있었다. 강병이가공정, 물엿생산공정, 옥당생산공정을 비롯하여 모든 설비들과 기대마다에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부타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공장종업원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가 뜨겁게 들어있어 돌아볼수록 깊은 감동

을 자아내게 했다. 생산설비와 분석설비는 물론 효소배양기질과 기술, 정보체계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척척 해나가고있는 평양곡산공장은 말 그대로 남의것이 아닌 자기의것으로 판명되어있었다. 주체화,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서 《은하수》상표를 단 갖가지 식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광경을 바라보느라니 호못한 심정을 누릴길 없었다. 참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위대한 레일을 약속해주시는 이 공장에서만 이온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주체화, 현대화의 동음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 과학탐구의 열매를 더 많이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 공화국강건 일흔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일 일념으로 자랑찬 과학연구 성과를 련이어 이룩해가고 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며 인민생활향상에 전한을 가져올데 대한 경여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리론실천적,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많은 성과를 얻어내고있다. 첨단과학기술교류사에서는 이미전부터 진행해오던 연소모형주조기술에 대한 연구를 더욱 완성하는 한편 수입에 의존하던 연소모형주조공정설비와 자체의 국산화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여 이를 실현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미 평양화학발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

소들에 도입되어 큰 은을 내고있는 연소모형주조기술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연소모형주조공정설비들은 얼마전에 진행된 제33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지구환경과학부의 연구집단은 국가통합전력관리를 위한 전력지리정보체계를 개발하고 실천에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전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이들은 불꽃튀는 탐구전, 창조전을 벌여 짧은 기간에 전력지리정보체계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해 경제학부의 연구집단이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들을 이어가며 대동강식료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통합경영정보체계를 훌륭히 도입완성하기 위한 전투를 벌여나가고있을 때 남포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 달려

간간 화학부 촉매화학연구집단의 연구자들은 과감한 두뇌전, 실력전으로 폴리프로필렌 합성촉매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 그것을 공업화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평양버섯공장, 평양화장품공장, 금성트락도르공장 등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이룩되고있는 많은 성과들에도 공화국강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과학기술조국의 부강발전이 더 큰 기여를 하려는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의 불타는 열정이 깃들여있다. 뜻깊은 9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과학연구성과를 안고 땀땀이 들어선 일념땀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은 과학탐구의 주르마다에 값높은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 대대로 안겨사는 사랑의 품

경여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열화같은 동포애와 드립같은 자주통일의지로 판문점에서 평화번영과 통일의 열매를 마련해주신 뜻깊은 사별은 온 나라를 커다란 격동과 환희로 들끓게 하고있다. 행성을 뒤흔드는 특기할 대사변을 련이어 안아오신 경여하는 원수님께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통일의 열매를 넘겨주는 사람들가운데는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1동에서 살고있는 임해옥과 그의 형제들도 있다.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이 다 그러하듯이 임해옥의 집에서도 그의 형제들이 TV앞에 모여 앉아 력사적인 그 장편들을 시청하며 흥분을 건질수 없었다. 《분별의 장벽이 통채로 무너져내리고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자유롭게 오고갈 통일세상이 막앞에 보이는것만 같아요. 가슴벅찬 이 순간을 아버지께서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나요》

그날을 예라게 그리던 아버지를 생각했다. 임해옥의 아버지 임권순의 고향은 충청남도 보령시이다. 망국의 세월 그의 어린시절은 일찌기 어머니를 잃고 갖은 고생속에 홀로 자랐다. 가난과 학대속에 몸부림치던 그에게서 배움의 꿈은 피기도 전에 시들고말았다. 그러럼 배우고싶었던 소망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의용군에 탄원하여 공화국의 품에 안겨져서 비로소 성취될수 있었다. 전후 혼란 안내고 대학의 교정에서 마음껏 배우던 나날 임권순은 중학공부라도 해보자며 공주, 부산 등으로 부령초처럼 떠돌아다니던 나날들이 떠오르고 대학생이 된 모습을 남쪽에 두고는 부모형제들이 보았으면 얼마나 기뻐하랴 하는 생각에 눈물을 적시었다. 오늘날 임해옥과 그의 형제들은 생전에 아버지가 감격에 겨워 자주 들려주던 이야기, 전쟁의 피화가 맺은 이듬해 임권순이 다니던 대학을 찾아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교향이 어딘가, 부모형제들이 보고싶지 않은가 물어주시며 공부를 잘하여 나라의 믿음직한 일꾼으로 자라라는 그의 믿을만한 일꾼으로 자라는 것이 보살펴주시는 가슴뜨거운 일들을 잊지 못하고있다. 감격에 겨운 그날 임권순은 겨레에게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리라 그토록 마음쓰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한몸 다 바쳐 받들어갈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

이날의 맹세를 지켜 임권순은 대학을 졸업하고 분계연선지인 황해남도에서 도급기관 일꾼으로 밤낮이 따로없이 일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의 남모르는 수고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더 잘하라는 한량없는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절세위인들의 육친의 정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깊어만 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적인 대회들의 대표로 임권순을 불러주시고 어머니수령님의 존함을 더 해 일을 더 잘하라는 한량없는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인 경여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오 늘은 임권순의 자식들모두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일꾼으로 자라나 복받은 삶을 누려가고있다. 언젠가 잊어진 가족, 친척상봉장에서 임권순을 만난 남녘의 형제들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행복의 단상에 올라선 그의 이야기를 깊은 감동속에 듣고나서 그의 말은 믿지 않아도 혈육의 말은 믿는 법이다. 형님의 말을 들으니 공화국이야말로 차별과 한계를 모르고 온 겨레를 한몸에 안아 보살펴주는 참세상임을 알수 있다.》고 하였다. 임해옥과 그의 형제들은 대를 이어 누려가는 행복의 크기를 심장에 새겨안고 절세위인의 령도자 자자손손 복락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흥범 식

## 《통일신문》가 만난 사람들

### 아시아축구련맹 집행위원 한은경

지난 3월말 남조선의 부산에서 동아시아 축구련맹(AAFF) 집행위원회와 총회가 진행되었다. 동아시아 축구련맹 관계자들이 모여 열린 회의에 유일한 녀성위원이 참석하여 못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아시아축구계에 서 무시할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그의 이름은 한은경(61살),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인 아시아축구련맹 집행위원인 그를 통일신문사 기자가 만났다.

공부에서도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이 오늘의 장흥구평양상업중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하지만 축구에 대한 예정은 언제나 가슴속에서 끓고있었다. 그후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올림픽위원회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땀다. 축구에 대한 애박한 지식과 열정을 모두를 감탄하게 했으며 특히 그의 외국어실력은 전문가들도 무뎀케 했다. 이어 그는 조선체육대학까지 졸업하였다.

그리면서 평양국제체육학교를 돌아본 다른 나라의 축구 관계자들이 이렇듯 훌륭한 축구교사이거나 나이린 축구선수들이 돈 한푼 안내고 재능을 꽃피우고있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었다. 조선의 축구선수들이 정말 부럽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평양시와 각 도(직할시)에 축구학교들이 나왔는데 더 많은 축구후비들을 양성하는데서 한몫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해박한 지식과 안목으로》 한은경선생은 2004년에 조선축구협회 국제부 집행서기로, 2013년부터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장으로 사업하고있다. 그는 2011년에 아시아축구련맹 녀성분과위원으로 선거되면서부터 아시아축구련맹에 첫발을 들여놓았다. 2013년부터는 아시아축구련맹 집행위원으로 선서되어오며 2016년부터는 아시아축구련맹 협회위원회 부위원장직도 맡아 보고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축구련맹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그는 현재 국제축구련맹 성원 협회 위원이기도 하다. 아시아축구련맹 위원들가운데서 녀성위원은 5명인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가 유일한 녀성위원이다. 축구에 대한 뛰어난 실력은 물론 정치와 경제, 외국어에 이르러 16살미만 선수련대회(9~10월),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 19살미만 선수련대회(10월). 이렇게 그가 손가락을 꼽으며 축구내리였는데 정말 2018년은 공화국에 있어서 축구의 해인것 같았다. 《국제무대에서 우리 선수들이 꼭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겠는데...》

《때없이 벌어지는 《축구전쟁》》 아시아축구련맹과 국제축구련맹에서 당당히 인정받고있는 한은경, 그는 남달리 가정을 사랑 하는 녀성이다. 그에게는 대외사업부에서 일 하는 남편과 갖 집들을 간 딸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는 가정사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남편과 자식들에게 다심한 정을 기울이고있다. 사업상특성으로 자주 집을 떠나 출장을 다니는 그를 언제나 말없이 고무격려해주고 도와준 것만은 남편이다. 남편이 직장일이 바빠 몸이 지지만 안락의 사업에 대해 관심하고 조언도 해주곤 한다. 그는 가족이 모일 때는 일요일 저녁, 아무리 바빠도 그때만은 시간을 내어 모여앉는것이 철칙으로 되었다고 한다. 그때의 화제거리도 역시 축구이다. 아들과 딸은 유명한 축구선수들의 이름을 꼽아가며 기술적특점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하

면 남편도 젊어 한때 축구를 했던 지라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경기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종결론을 내리는것은 한은경선생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축구를 떠나 못사는 한은경선생이다. 그는 말한다. 《체육을 중시하시는 절세의 위인을 모시며 날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체육도 있고 축구의 밝은 미래도 있습니다. 아시아축구련맹 위원이기 전에 저는 조선사람이고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명예를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의 축구가 아시아에서만이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패권을 쥐도록 하기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 인기를 끄는 개성고려인삼전시장



인삼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무병장수하게 하는 보약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었다. 인삼이란 말은 그 뿌리가 사람모양이라는 데서 지어진 이름인데 산에서 자라는 것을 산삼이라고 하며 재배하는 것을 인삼이라 불렀고 있다. 인삼은 건강, 면역기능향진, 조절기능강화, 음식물의 소화 및 흡수기능강화 등의 작용을 하며 단백질과 지방산의 생합성을 촉진시키고 혈당량을 낮추며 열물분비를 촉진시키는 등 물질대사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하여 옛날부터 특효약재로 이용되어왔다. 우리 나라에서 인삼재배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특이 품종과 기후 등 자연지리적조건이 인삼재배에 적합하고 상업이 발전한 개성지방에서 많이 재배하여온 것으로 하여 《고려개성인삼》, 《개성인삼》이라고도 한다. 평양의 보통강반에 자리잡고 있는 개성고려인삼전시장은 이처럼 이름난 개성인삼을 가지고 만든 갖가지 제품을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전시장에는 개성고려홍삼가루, 개성고려인삼생강차, 개성고려인삼마차, 개성고려인삼커피, 개성고려인삼술, 개성고려인삼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 봉사자들의 말에 의하면 적지 않은 제품들이 이미 국내는 물론 여러 국제 상품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전시장에는 여러가지 특색 있는 음식들을 봉사하는 식당도 있다. 주로 인삼담과삼계탕, 인삼백김치, 인삼탕알고기찜, 인삼차 등 인삼을 리용하여 만든 갖가지 요리들과 음료들을 봉사하고 있는 데 그 맛이 독특하고 약효가 뛰어나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인삼담과삼계탕은 담도 개성지방에서 기른 닭으로, 개성의 이름난 요리사에 가서 전수받은 기술로 만든 것으로 하여 그 맛과 효능이 아주 유명하다. 개성고려인삼전시장이 문을 연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곳으로는 많은 평양시민들과 해외동포들이 찾고 있다. 지금 개성고려인삼전시장의 봉사자들은 더 많은 고

## 역사문화유적의 주의 통군정

외적과의 싸움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였다고 하여 의주라고 불리우는 평안북도 의주군의 주의읍에는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어린 력사유적들이 많다. 그중에는 건물의 구조와 형식이 장쾌하면서도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와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전해져 온 통군정도 있다. 고려전반기에 처음 세워진 통군정은 의주성의 북쪽장대로 세워진 무지이다. 통군정은 의주성에서 제일 높은 북쪽 삼각산봉우리에 위치하여 그대의 압록강과 근방일대를 내다보며 군사지휘를 하기 좋게 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중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지금의 통군정은 1478년에 개건한 것이며 그후 1538년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보수하였다. 보통 무정은 정면의 간수보다 측면의 간수를 적게 하고 정면의 간수를 홀수로 하는데 통군정에서는 정면과 측면의 간수를 다같이 짝수인 4칸으로 한 것이 특이하다. 정면 4칸(14. 41m), 측면 4칸(11. 85m)으로 짜고 한간너비와 무정의 복판에 T형평면으로 마루를 깔았다. 무정에는 홀림기둥을

## 단편소설 가족 사진 (2)

글 김승기, 그림 리성일

광천리는 립산지구인 성흥로동자구와 한마장거리로 이웃해 있다. 사진을 찍으러 먼 거기에 있는 사진관에 찾아가도 된다. 그런데 부디 20리가 넘는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영만은 이러한 속궁냥을 읽은 채 손님이 또 이야기의 발을 들었다. 《이왕이면 우리 어머니 80쪽 생일사진을 좀더 잘 찍어드리고 싶어서...》 영만은 약간은 멧적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청찬》이 정 싫지는 않았다. 그러니 그것은 꼭 자기에게 사진을 찍고 싶다는 말이었다. ...영만은 유능한 사진사였다. 벌써 30년 가까이 사진사로 근무하는 오랜 사진사 일꾼만이라 사진사라도 누구나 다 하지 못하는 사진가 동맹의 어엿한 맹원이다. 그가 이렇게 사진사동맹의 맹원으로 되게 된 데는 그의 사진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가 적지 않은 을 냈다. 남다른 예술적관상과 예리한 구도감각, 여러가지 빛에 대한 능숙한 활용능력을 갖춘데다가 사진현상기술까지 높아 그는 전국적범위에서 진행된 사진전람회에 여러번 좋은 작품을 내놓아 당선된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이

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진을 찍을바에는 좀더 유능한 사진사에게 찍으려는 《유심》이 작용했으리라... 그러니 영만에게는 좀 딱한 사정이 있었다. 글썽 읊지구의 사람이라면 할수없이 자기가 꼭 찍어야했지만 성흥로동자구사진사에 부탁을 해도 될 일인데 자기 부디 20리길을 걸어가 꼭 사진을 찍어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았다. 더구나 자기가는 매일 읍청동농장에 다니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데... 그리하여 영만은 그의 눈길을 피하며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그래도 성흥로동자구에 갈걸 그랬습니다. 80쪽 생일 사진이야 누가 소홀히 찍겠습니까?》 반가결의 의미가 비긴 이 말에 젊은 손님은 멘겁을 하듯 놀랐다. 마치도 사진이 영 망가진다는 우러라도 든 듯 급히 앞으로 다가가 영만의 손까지 덥석 잡았다. 《사진사동지, 저의 어머니는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 또다시 간절한 소원의 빛이 어려웠다.

영만은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군. 이런 효자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랴! 영만은 선선히 약속을 했다. 《매일 점심녘에 도착하면 되겠지요?》 영만은 이렇게 말하니 젊은 손님은 날듯이 기뻐했다. 《그러므로. 광천리 3번에 와서 저를 찾으면 됩니다. 김명후라고...》 자기 이름이 《김명후》라고 소개한 그는 광천리 3번에 와서 큰 추리나무가 세그루 있는 집을 찾으면 된다고 자초지종 길까지 설명해주었다. ... 영만은 그래서 바로 이 집에 왔다. 어머니를 위하는 아들의 그 마음이 사진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려고 매일 아침 하려던 사진제작업까지 밤도와 해제끼고 읍청장을 거쳐 여기로 온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이 집의 광경이란 참... 글썽 잔치집이야 흥성거리 나뉠것이고 없고 인물대사에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갖 할것이 못된다. 그러나 그것도 웬간해지지 지금 이 집처럼 요란해진다면 사회주의사회의 새로운 풍속파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청해들인 손님이 집이 러져나

# 호평받는 기능성화장품들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여성들의 화장품에 대한 기호는 참으로 다양하다. 어떤 여성들은 화장품이라 할 때 무엇보다도 보습성이 좋아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여성들은 자기의 얼굴을 갖난아기의 피부처럼 맑고 부드럽게 해줄 화장품을 찾는다. 그런가 하면 일부 여성들속에서는 검버섯이나 주근깨, 주름같은것을 없애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최근년간 공화국의 합원기술교류수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여성들의 각이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드름제거살결물과 미백살결물, 주름제거물크림, 자외선방지분크림, 스르플러나세수비누를 연구개발하였다. 교류수에서 개발한 기능성 화장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영은 대단히 좋다. 미백살결물을 사용한 여성들은 한결같이 보습성이 좋은데다가 이상하리만큼 피부가 투명해지고 검버섯과 주근깨같은것도 점차 없어진다고 말하고있다. 합원기술교류수에서는 살결물의 미백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세계 화장품공업계에서 기적의 물질로 인정되고있는 과일산과 특차추출물, 장미추출물 등을 주원료로 하는 독특한 화장품 제조방법을 적용하였다. 미백살결물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주름제거물크림도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등을 함유하고있어 오래동안 사용하면 잔주름뿐 아니라 굵은 주름까지도 제거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있다. 합원기술교류수에서는 여성들의 피부가 자외선



## 조선식탑건축술

조식식탑 건축술은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전통적인 탑건축술에 관한 건축술의 총체로서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 옛탑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나무와 돌 등 건축재료에 따라 나무탑, 돌탑 등으로

의 나무탑위주의 탑건축술은 오늘 현대적미감에 맞게 계승되고있는데 탑기단과 탑몸, 탑머리 등 구성된 탑의 구성수법은 현대의 거의 모든 탑들에 그대로 적용되고있으며 옛탑건축의 비례수법도 현대탑건축에 도입되고있다. 본사기자



묘향산 보현사의 8각13층탑

## 일화 명화로부러울작으로

15세기중엽 도화서(조선봉건왕조시기 화가들이 배속되어있던 관청)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이 시기 강희안, 리상좌와 함께 3대화가로 유명했던 안견의 방에서는 어느날 많은 화가들이 아침부터 모여와 한낮이 지나도록 이야기판을 벌리고있었다. 그들이 펼쳐놓은 화제의 중심은 앞에 놓인 한 점의 그림이었다. 우리 나라에 전해오는 《명화》들중의 하나인 그림은 오래 자란 소나무가 거연히 서있고 그 아래에서 한사람이 뒤집을 지고 쳐다보는 장면이었다. 이름드러 소나무밑동 아래의 짙적갈라진 두터운 껍질과 그 사이사이에 들여다보이는 물기호르는 속껍질들은 갖은 풍상고초를 다 겪으며 곳곳이 살아온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있는듯 하였다. 또한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소나무꼭대기에 돌아난 가지들에 붙은 바늘잎사귀들은 젊음을 자랑하며 끝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버리고있어 더욱 장쾌한감을 주고있었다. 키높이 자란 소나무의 장한 기상에 감동된것 그 곁을 떠날줄 모르고 대견스럽게 바라보는 주인공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이때 좌중에서 튼튼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여보게 안견, 자네 왜

《자, 원앙처럼 다정히 사진을 찍으시다. 신랑, 신부 고개를 가운데로 가운데로 주십시오. 원앙부리를 맞대듯이...》 하고 모양새를 바로잡아가며 사진을 찍어주었다. 아기가 투정질을 하는 돌사진을 찍을 때는 《애기 이 녀석, 돌사진을 우는걸 그냥 찍어줄라.》 하고 얼리면서 5분이고 10분이고 기다려 봐게 웃는 사진을 찍어주곤 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기분이 그닥 개운치 않으니 덕담 한마디 던질줄 모르고 그저 묵묵히 사진기 사타만 놀러뉠 리지 말아야겠는데 하고 자책할 해보았지만 마음에 비해 결행동은 그저 무뎠직한 현상으로 나타났었다. 이런 속에 이제는 사진을 거의 다 찍은 모양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 어머니를 《할머니》, 《큰어머니》라고 부르며 친척할형을 가릴수 없는 수많은 사진을 찍고나자 일순 조용해졌다. 《자, 이젠 사진을 찍을 사람이 더 없소?》 대사를 주관하는 중로배가 누구에게라 없이 물으니 아마 마지막사진을 찍을 사람인데 웬 초로의 사람이 사람들 틈바구니를 헤집고 나섰다. 《나도 함께 찍으시다.》 그를 바라보던 영만은 깜짝 놀랐다. 아나 이 사람은 이곳 광천리 리당위원장 아닌가? 그런데 리당위원장도 여기 와 있었나?